

종단 홍보시스템 약하다

조계종 빼곤 홍보팀 없어... 기관지·홈페이지 활용에 그쳐

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홍보실을 강화하며 이익 창출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정부 기관 등도 다양한 계층과의 포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각 종단의 홍보 시스템은 조계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중 유일하게 홍보팀을 갖추고 있는 곳은 조계종 뿐이다. 조계종은 기획실 내 홍보팀에서 종단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의 실무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다. 하지만 이들중 홍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른 종단보다 일찍 홍보 업무에 눈을 뜨지만 홍보팀이 조직전체의 유기적인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홍보팀의 업무도 총무원 각 부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출입기자인 관리, 홈페이지 관리, 홍보 제작 등 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계종 홍보팀에서 아쉬운 점은 적극적인 종단 PR이나 체계적 매뉴얼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한류나 웰빙, 사찰음식 등 사회적 트렌드를 불교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면서도 종단차원의 홍보 전략이 없다.

또 불교나 종단에 대한 일반 언론의 편하나 종단스님들과 관련된 사회적 비위를 들추어낼 때 단호하면서 적절한 대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계종은 지난해, 스님에 대한 비하를 담은 연재물을 게재한 모 월간지의 분쟁에서 적절한 전략을 통한 논리적 대응보다는 힘에 의한 위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낡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오히려 국민들이나 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심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계종 홍보팀은 국정홍보처나 일반 단체의 공보기능을 수행하는 곳들과 비교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도 조건은 미약하지만 일단 홍보의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올해 초 전산팀이 관리하던 홈페이지를 홍보팀 업무로 이관해왔다. 교계지 일간지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가능한 홍보거리를 찾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에는 각종 종단 소식과 보도자료, 입찰공고 등이 신속하게 올라오고 있어 홍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홍보팀장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다. 주어진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홍보 담당자의 홍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홍보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절실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계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단은 아예 홍보팀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4개 종단은 종단 기관지들이 홍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종단에서 일어나는 행사 일정과 이에 따른 보도자료 정도만 알릴 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업무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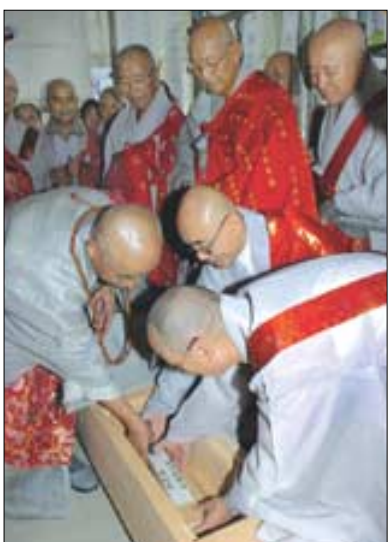
또한 총지종 일봉선교종 마륜종 법륜종 등 10개 종단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행사와 공지사항 정도만 종도들에게 알릴 뿐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지난해 모종단 소속 승려가 무속행위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종단은 해당 승려의 징계에만 그쳐 일반인들에게 종단의 입장과 대응결과를 알리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홍보창구가 있었다면 종단의 결연한 자정지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천태종 총무국장 율도 스님은 "종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는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 기능을 갖춘 홍보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종단이 올해 안에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때 적극적으로 홍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필·조용수 기자

전통문화전승관 상량식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윤산)은 8월 21일 서울 사간동 법문사에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

승관 상량식(사진)을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종회의장 인공 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윤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법맥을 계승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가 들어설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이 종도들의 원력으로 상량식을 봉행하게 돼 기쁘다"며 말했다.

이날 상량식을 마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은 연건평 1600여평규모에 지하 3층, 지상 4층을 갖춰 오는 11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관음종 생전예수재·영산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1일 오전 10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금강 둔치 야외법당에서 국채인민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 및 영산대제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홍파 스님의 법문에 이어 방생, 영산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각종 자성동이 축구대회 16팀 참가... 대전 금강FC 우승

제1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초등생 신행모임) 미니 축구대회(사진)에서 대전 금강FC가 우승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 주최로 8월 18~19일 위덕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 팀, 200여명의 자성동이 선수들이 참가했다.

7명이 한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의 우승은 B조 1위로 올라온 경산 코끼리를 4-0으로 누른 A조 1위 팀 금강FC가 차지했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 달라져요"

해군교육사령부 법당 재정결약... 군법사 사재털어 위문품 마련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는 해군으로 지원되는 일반 사병들과 부사관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곳이다.

또한 장교들도 각종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 사령부로 파견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군으로 입대하면 누구나 거쳐 가는 교육기관인 셈이다.

해군교육사령부에는 보국사와 흥국사 등 두 개의 법당이 있다. 영내에 위치한 보국사는 사병 위주로 법회를 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 등 일반인원도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군 예산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어져 시설면에서는 군법당 가운데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당을 운영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사병들이 찾는 도량이다보니 수입은 전혀 없고 부사관 등 간부 불자들이 군법사가 실시할 모아 매주 법당을 찾는 1000여명의 훈련병들에게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수계법회 때는 군법사가 사재를 털어 위문품을 주고 있다.

영내에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부대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역 불자들에게 알려지지 않



해군교육사령부 군법당은 매주 1000여명의 장교 및 사병 불자가 법회에 동참하는 등 해군 포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영의 법당인 흥국사에서 8월 20일 일요일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았고 후원 단체나 사찰도 전무한 상태다.

다행히 또다른 군법당인 흥국사가 영외에 위치해 있고 부사관과 장교 및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약간의 보시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해 보국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주지 군법사와 신도회 간부 등이 열의를 가지고 군포교에 나서고 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법회 이외에 훈련장 위문 등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하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같이 군에 처음 들어와 불교를 접하는 군법당은 지역 사찰

이나 단체, 불자들의 후원이 더욱 절실하다. 초코파이 하나로 평생의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군교육사령부 진성필 군법사는 "장병들의 포교와 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고 싶지만 많은 시간을 법회에서 나누어줄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이같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을 요청했다.

후원계좌 821145-56-028181 농협 백근옥, 전화 017-340-5583 김두식 기자

군종교구 상임위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민)는 8월 18일 총무원 총무국장 정범 스님과 부주지 계성 스님, 각군 분부 군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호국원광사내 교구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분석 보고, 상반기 재정결산 보고, 만인동참 추진 경과 보고,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일민 주지 스님은 "그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1주년을 맞아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준비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명제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불)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협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당 건립 후원: 남은 군법당 건립,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당을 지원
- ▶통합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정가: 20,000원

공부는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워져 천리의 애국과 헛된 망상에 끄달려 지옥문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인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인도 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대상: 스님, 일반인
- 특전: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 접수: 9월 21일 한
- 학기: 2학기

※ 통신과정도 가능합니다.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개강일시	교과목	내용	교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법회일엔 화요일	2교시 공사상(특강) 유석학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우편 통신생	동국대 문의식 박사 동국대 오형근 박사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 문의 02)496-3952-3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이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이로 접속하세요!!

[광고접수문의]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의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